

# 농촌용수 개발로 가뭄 해소·영농 기반 구축

## 강진군, 화산지구 용수 개발사업 국비 166억원 확보 저수지 규모 2배 확대...175.4ha 농경지 안정적 공급

강진군이 국비 확보를 통해 상수 가뭄 피해 해소와 영농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7일 군에 따르면 군동면 화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2026년 기본조사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강진군을 비롯해 국회, 전남도,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발로 뛰며 만들어낸 결실이다.

군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사업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왔다.

이번 사업은 군동면 화산리 화산저수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166억원(국비 100%)이 투입돼 5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추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저수지 규모를 2배



화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대상인 군동면 화산저수지. 사진제공=강진군청

이상 확대하고, 용수로 4.1km 및 이설도로 101.2ha에 더해 보강 28.2ha, 신규 46ha를 1.8km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101.2ha에 더해 보강 28.2ha, 신규 46ha를 포함한 총 175.4ha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화산저수지 유효저수량은 45만 1000t으로, 필요 수량 대비 48만 1500t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팔단부 지역은 별도의 수원이 없어 매년 반복적인 가뭄 피해를 겪어왔다. 또 가뭄 시 군동면 유입수 감소로 취입보와 양수장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등 농업용수 공급 체계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저수지 총저수량은 93만 2500t으로 확대돼 부족 수량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미 월남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유사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월남지구에 이어 화산지구까지 연속적인 사업 성과를 이뤘던 것은 국회와 전남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다"며 "앞으로도 기본조사부터 사업 완료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실시설계 및 본격적인 사업 착수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2252@gwangnam.co.kr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에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 내 자연생태관이 다양한 생태 전시와 체험 요소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함평엑스포공원 자연생태관 모습. 사진제공=함평군청



## 함평나비대축제, '자연·생명의 가치 체험'으로 사로잡다

### 나비 닮은 꽃 '호접란' 식재... '자연생태관' 관람 호응

5월 5일까지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에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 내 자연생태관이 다양한 생태 전시와 체험 요소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자연생태관은 자연과 생태의 조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전시관 내부에는 나비를 닮은 꽃인 호접란이 식재돼 있어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침낭을 활용해 제작한 '동지섬터'는 도시화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는 야생조류의 서식 환경을 알리고, 새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형성화한 공간이다.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관람객들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배추흰나비관은 살아있는 나비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제공한다.

자연생태관 내부의 작은 폭포와 수생 공간에서는 거북이가 서식한다. 다양한 생태 환경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군 관계자는 "자연생태관은 자연과 생태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이다"며 "관람객들이 다양한 전시를 통해 생태계의 중요성을 느끼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을 주제로, 봄날의 설렘과 자연의 생동감을 담은 다채로운 경관과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 완도사랑상품권, 5월 특별 할인 실시

### 할인율 12%→15% 상향 등 가계 부담 완화

완도군은 5월 '가정의 달'과 '2026 Pre 완도국제제조류박람회' 개최를 맞아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5월 한 달간 완도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상품권 특별 할인은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군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결정됐다.

군은 기존 지류 상품권 할인율을 12%에서 15%로 상향했으며, 모바일 상품권(카드·QR)은 기존과 같은 할인율(15%)을 유지한다.

이에 42만 5000원만 부담하면 지류 상품권 50만원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지류와 모바일을 합산해 개인당 월 70만원이며, 이 중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지류 상품권은 지역 내 판매 대행 금융



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앱을 통해 충전·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은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완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순천 매실청, 일본 시장 공략...고품질 농산물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순천엔매실(주), 9t 수출 농업인 소득 증대 기대

순천시는 최근 순천엔매실(주)에서 '2026년 순천 매실청 일본 수출 기념 상차식'을 개최했다.

상차식에는 순천시를 비롯해 순천엔매실(주), 순천농협,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매실작목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순천엔매실에서 생산한 매실청 9t으로, 금액은 약 6500만원 상당이다. 특히 이번 수출은 2020년 이후 중단됐던 일본 수출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순천엔매실은 순천에서 수확된 매실을 매입해 가공한 뒤 미국, 중국, 호주 등 3개국으로 수출했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엔매실(주)에서 '2026년 순천 매실청 일본 수출 기념 상차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순천 매실은 재배면적 1099ha 규모로, 월동·황전·해룡 지역을 중심으로 2600여 농가가 생산하는 순천의 대표 농산물이다.

농업법인순천엔매실은 생산·가공·유통을 아우르는 6차 산업 기반 구축을 위

해 매실 농가 1600여명이 뜻을 모아 설립한 법인이다. 2015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7년에는 순매실농축액과 순매실청에 대해 미국 FDA 인증을 받는 등 국내외 시장에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품질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수출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화순군은 최근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2차분 추첨행사'를 통해 2026년 신규 입주자 100세대를 최종 선정했다. 사진제공=화순군청

## 화순,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100세대 선정

### 신혼부부 등 대상...청년 경쟁률 8.8대 1

화순군은 최근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2차분 추첨행사'를 통해 2026년 신규 입주자 100세대를 최종 선정 완료했다.

이번 추첨행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경찰 임회하여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전 접수를 마친 399명의 추첨자 중 3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부부 40호, 청년 60호 등 총 최종 입주자가 선정됐다.

선정된 입주자 중 화순에 주소를 입주는 57명(57%)이었으며 광주 33명(33%), 그 외 지역은 10명(10%)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0명(50%), 30대 43명(43%), 40대 7명(7%)으로 집계됐다.

이번 2차분 공급은 청년과 신혼부부 각 50호씩 총 100호를 모집했으며, 청년 436명, 신혼부부 53명이 신청해 각 8.8대 1,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만원임대주택은 화순군의 중심 생

활권에 위치한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도보권 내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하며, 인근에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이 고루 조성돼 높은 생활 만족도가 기대된다.

주요 버스노선이 인근에 집중돼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간선도로 진입도 용이해 군 내의 이동이 편리한 점도 장점이다.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오는 7~8월 중으로 입주 가능하며, 입주 후 14일 이내 화순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조미화 인구정책과장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주거·일자리·보육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화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화순이 청년을 키우고, 청년이 화순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 나주 인공태양 건립 가속...부지 보상 절차 시작

### 내일 주민설명회, 1.2조원 규모 인프라 구축 본격화

전남 나주시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와 보상 행정의 첫발을 댄다.

나주시는 29일 오전 마한농협양산지점에서 토지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 추진 일정 및 기본조사 협조를

구하는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선 것이다.

이번 행정 절차의 핵심은 설명회 당일 부터 시작되는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

사'다. 시는 해당 부지 내 건축물, 수목, 분묘 등 모든 물건을 정밀히 조사해 향후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2028년 2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용지를 적기에 인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장 조사 후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등 후속 공정을 속도감 있게 이어가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담 소통 창구도 상설화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으로 낙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왕곡면 에너지 국가산단 인근에는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차세대 에너지 연구 거점이 조성될 예정이다.

강상구 나주시청 권한대행은 "글로벌 에너지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 전환점인 만큼, 보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신영식 기자 cult@gjdream.com